

완도군, 해양치유 조성사업 '청신호'

국가균형발전위 시범사업 추천
최종 확정엔 3년간 200억원 투입
지역경제 발전·일자리 창출 기대



완도군이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실시한 해양기후치유 시범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체조를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완도군이 미래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9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이 추진하는 '해양치유 블루밸리 조성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추천됐다.

이 시범사업은 지역이 주도하고 여러부처와 수년간에 걸친 패키지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에서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정한다.

일자리창출, 공간혁신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자체 자율성, 사업 효과성,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지원한다.

전남도 공모에 11개 시군이 응모했으며 완도 해양치유 블루밸리 조성사업 등 2건이 선정됐다.

완도 해양치유 블루밸리 조성사업은 해양바이오단지 조성, 해양치유 스마트랩 플

랫폼 기반을 조성한다.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콘텐츠 개발, 해양치유자원 실용화 연구개발, 지역역량 강화 및 주민건강 증진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4월 최종 확정되며 시범사업 건설링(4월), 투자협약 체결(5월)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완도 해양치유 블루밸리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되면 향후 3년간 국비 등 총 200억원이 투입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양치유 블루밸리 조성사업은 지역주민 건강 증진은 물론 해양

치유 관광계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바이오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군 핵심전략 사업인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진도군,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취약계층 챙긴다

진도군이 주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제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29일 진도군에 따르면 올해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안전·건강·고용 등의 생활 관련 복지서비스를 중점으로 지원한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통합사례대상자에게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지난해 방문상담(441건)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424건을 제공했다.

민·관 협력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해 김치·전기 매트·선풍기 등 후원 물품도 전달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민원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행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로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완도~제주 여객선 운항 하루 2차례로 늘어

한라산 등반 관광객·화물 이용객 증가 예상

완도에서 제주를 잇는 여객선이 하루 2차례로 늘었다.

29일 완도군에 따르면 (주)한일고속은 대형 크루즈급 카페리 '실버클라우드' <사진>의 완도~제주 2항차 운항을 지난 25일부터 시행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 여객선 현대화펀드 사업을 통해 국내 기술로 설계·건조된 실버클라우드의 내륙에서 제주까지 가장 짧은 항로인 완도~제주 노선을 2시간30분에 운항한다.

지난해 10월25일 완도~제주 노선 첫 취항 이후 이용객 증가와 관광객 편의를 위해 3개월만에 운항 횟수를 1일 1항차에서 2항차로 확대 운행하게 됐다.

실버클라우드의 오전, 오후, 심야 등 다양한 시간대를 통해 여객의 이동 편리성 확대와 화물 수송능력이 강화되며, 특히 심야시간은 한라산 등반을 위한 여객이나 빠른 이동을 위한 화물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 김' 브랜드화 경쟁력 강화 나서

군, 포장재 2년 연속 지원 등 소비자 신뢰 확보 주력

전국 최대 물김 생산지이자 김 가공산업 메카인 해남이 '해남김'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섰다.

해남군은 지난해 '땅끝 해남 김' 브랜드 포장재 35만장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도 14억원을 투입해 80만장을 지원하기로 하고 김·자반 가공업체에 공급을 시작했다.

마른 김 생산 시기에 맞춰 4차에 걸쳐 공급되는 포장재 지원사업<사진>은 해남에서 생산·가공되는 마른김의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조기 정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해남 김이 신안 등의 상표로 유통되면서 해남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은 지역 가공업체는 물론 유통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9개소의 김·자반 가공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마른김 9200t, 자반 2000t을 생산하는 등 김 가공업 규모가 3000억원에 달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진도군, 농·어민 소득 상승세 유지

작년 농·수산 총소득 9397억원...7년새 213% 증가

진도군의 농·어민 소득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9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399억원에 불과하던 농·수산 소득이 2018년 기준 9397억원으로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업소득은 3945억원, 수산소득은 5452억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 농어업인도 2011년 대비 농업인은 44명에서 154명으로 110명(250%) 증가했으며, 어업인도 133명에서 426명으로 293명(220%)이 증가했다.

농업 경영유형별로는 벼 245명, 밭작물 3명, 과수 1명, 채소 36명, 가공8명, 축산 22명, 임업 5명으로 벼농사 종사자가 전체 76.6%로 가장 많았다.

어업 분야별로는 양식어업 종사자 360명, 어선어업 종사자 20명, 가공·유통 분야 16명, 기타 30명으로 양식어업 종사자가 전체 84.5%를 차지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고소득 농어업인이 늘어난 것은 진도군의 지속적인 농·수산업 지원에 따른 농업 및 양식어업의 활성화와 농수산물품 홍보 등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폐건전지·형광등 가져오면 생활용품으로 바꿔줍니다"

해남군,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

해남군은 오는 2월부터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종이팩을 생활용품으로 바꿔주는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은 폐자원을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가져가면 생활용품으로 교환해 주게 된다.

폐건전지는 20개당 종량제봉투(20ℓ) 1매 또는 새 건전지 2개, 폐형광등은 5개당 종량제봉투(20ℓ) 1매, 중

이팩은 1kg당 화장지 1롤과 바깥 수 있다.

재활용을 위해서는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도록 수거해야 하며,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워 물로 헹군 후 펼쳐서 건조해 용량별로 구분해 모아야 한다.

지난해 첫 시행한 재활용품 교환을 통해 폐건전지 2940kg, 폐형광등 5011kg, 종이팩 3110kg을 수거해 소중환 자원으로 재활용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Approved Partner Heat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모던건설)